

원 지

晴崗診療簿 자료현황 보고 - 입수경위와 정리현황 및 연구적 가치-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paper on the Present Condition of Cheong-Gang (晴岡) Medical Chart - Means of Acquisition, Filing Condition and Research Value

Wung-Seok Cha

Dep.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troduction : Kim-Young-hun (金永勳), with the pen name of Cheong-Gang (晴岡), was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He led an active life as an eminent Korean traditional medical scholar until the mid-20th century. He opened a Korean traditional medical clinic in the heart of Seoul and kept records of his clinical experiences.

Methods : Filing of clinical records: Cheong-Gang's records, at present owned by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are classified into prescription charts and medical examination charts. In this study, only the medical examination charts were filed.

Results : The total number of the medical examination charts from 1915 until 1974 is 393, and the titles are sorted according to date. This paper is the first filing research on the medical examination charts.

Key Words: Kim-Young-hun, Cheong-Gang, Korean medical charts,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1. 머리말 및 晴崗 金永勳 약력

김영훈(金永勳) [號 晴崗 1882 - 1974]은 1882년 4월 강화도(江華島) 온수리(溫水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공부하였으나, 15세 되던 해에

눈병을 앓은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인천에서 활동하던 명의 서도순(徐道淳)의 제자가 되어 의학을 공부하였다. 1904년에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 교수로 선발되어 1905년부터 한의학을 강의하였으나, 1907년에 고종이 물러나면서 동제의학교가 문을 닫자, 전의(典醫)출신이며 당시 한의학의 원로였던 홍철보(洪哲普), 장용준(張容駿), 최규헌(崔奎憲)등과 팔가일지회(八家一志會)를 만들어 한의학의 부흥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15년 전국의생대회(全國醫生大會)를 개최하여 전국규모의 한의사단체를 결성하였으며 한의학 전문잡지 『동의보감(東醫報鑑)』을 창간하였다. 1924

· 접수 : 2004년 4월 1일 · 논문심사 : 2004년 4월 3일

· 채택 : 2004년 4월 2일

·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9446, E-mail: chawung@khu.ac.kr)



그림 청강 김영훈

년에는 학술단체인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研究會)를 조직하여 학술 진흥에 힘을 기울였고 1937년에는 경기도립의생강습소(京畿道立醫生講習所)를 열어 한의학의 후진을 양성하는 등 일제시대 한의학부흥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구왕궁(舊王宮) 명예전의(名譽典醫),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서울한의과대학[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의 명예학장으로 추대되었다. 1963년 대한민국건국축하식에서 건국국민훈장(建國國民勳章)을 수여받았다. 1974년 7월 향년 93세의 일기로 작고하였으며 저서로는 『수세현서(壽世玄書)』가 있고 유고로 『청강의감(晴崗醫鑑)』이 있다.[이상의 김영훈의 약력에 대해서는 『晴崗醫鑑』(李鍾馨 編, 成輔社 1990)중의 「晴崗 金永勳先生の生涯와業績」과 『大韓韓醫師協會四十年史』(韓大熙 編, 大韓韓醫師協會 1989), 『素軒鄭源燾遺稿集 解放後漢醫學 발자취』(鄭源燾 著, 玄凡社, 1988)의 내용을 참고하였음.]1)2)3)

2. 청강진료부(晴崗診療簿)의 본기관 기탁 내력

김영훈은 1907년 동제의학교가 폐교된 이후 1909

년 봄에 현재의 낙원동 탑골공원 뒤편[현재의 허리우드극장 자리 - 장자 金琦洙씨의 증언]에 보춘의원(普春醫院)을 개업하였는데 이종형은 “이곳은 큰 사거리였으며, 당시 지은 건물은 2층 40평규모의 붉은 기와 건물인 당시에는 초현대식건물이었고 내부구조도 대합실, 진료실, 조제실, 수부 등으로 구획설비하고 종업원은 5명이 근무하였으며 …중략…당시 양의원에 서도 볼 수 없는 초현대식 의원이었다.”고 하였다.

김영훈은 개업초기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겼는데 자신이 쓴 처방전을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매일매일 진료부를 작성하였다. 그가 이렇게 기록해서 모은 처방전과 진료부는 김영훈이 작고하는 그해 봄까지도 이어진다.[최초기록일은 처방전 1914년 4월 1일이며 최후기록일은 진료부 1974년 1월15일이다.] 그의 이러한 기록습관에 대해서 장자인 김기수[金琦洙 (1928 ~): 서울출생, 字는 遠昌, 號는 靖齋, 晴溪, 凡洲, 野竹軒, 경복중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외교관으로 영국, 인도, 일본에서 근무하고, 인도네시아 및 태국주재 공사와 국제연합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상임대표를 지냈고, 호주 시드니총영사, 로스엔젤레스총영사 및 뉴욕총영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포르투갈대사 및 브라질 대사를 역임.]를 비롯한 가족들은 여러 가지 증언을 하였는데, 특히 손자인 김용건은 “학교에 다녀오면 할아버지는 항상 다락방에서 늦게까지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2002년 여름 김기수씨 이태원동 자택근처 음식점에서 녹취 (장손인 김용건은 현 포항제철 부사장 미주지사근무)]라며 김영훈의 기록습관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였던 이종형도 김영훈의 유고인 『청강의감』을 편찬하면서 서문에서 “... 선생은 평소의 임상진료실적들을 철저히 기록하여 60년간 개업의 임상실적들을 빠짐없이 보존하여 왔으며 ...”라고 기술하였다.

김영훈은 이처럼 일제시대 의생대회개최, 전선의 회활동, 학술지간행 등 대외적인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자신의 보춘의원에서의 진료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때 진료기록을 꾸준히 작성하였는데, 크게

처방전(處方箋)과 진료부(診療簿)로 나뉜다. 처방전은 환자의 성명과 주소 처방명과 처방내용이 적인 것이고, 진료부는 이러한 내용외에 병명과 원인 발병일 및 기타사항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처방전과 진료부라는 명칭은 김영훈이 이 기록을 보름 또는 한달단위로 철을 해두면서 표지에 붙인 이름이므로 본고에서는 그것을 좇아 김영훈의 호를 붙여 ‘청강처방전(晴崗處方箋)’, ‘청강진료부(晴崗診療簿)’라고 명명하기로 한다.[이 처방전과 진료부를 동시에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것을 먼저 작성하고 후에 다시 정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청강진료부를 포함해서 의약관계 고서 및 비의약 고도서 수천점이 의사학교실에 들어오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청강 김영훈의 장자인 김기수씨는 현 경희대학교 학원장인 조영식 박사에게 그간 보관해오던 부친의 유물을 경희대학교에 기증할 뜻을 전달하고 [김기수 전대사와 조영식 학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선배사이이며 또 김영훈 선생이 생전에 경희대학교에서 한의과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또 경희의료원의 개원식에도 특별 초빙되어 참석하는 등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김영훈 김기수 부자가 모두 조영식 학원장과는 친분이 있다.] 조 학원장

의 지시아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주임교수인 김남일 교수가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김남일 교수는 그해 여름 성북동자택에서 유물 수천점을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역사박물관 자료실로 옮겨왔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청강진료부와 청강처방전은 김영훈의 작고이후 수세자였던 이종형 [李鍾馨 1929년 황해도 출생. 동양의약대학졸업. 동양의약대학 재학시절 김영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984년 청강 김영훈의 유고 『晴崗醫鑑』을 펴냄. 경희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이 『청강의감』 편찬 등 연구를 위해 김영훈의 본가에서 가져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김기수의 권유로 그해 늦여름에 의사학교실로 돌려주었다. 즉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청강진료부는 김영훈의 장자인 김기수씨가 본교 의사학교실에 연구를 위탁하면서 기증한 김영훈 관계 자료의 일부분이다.[현재 김영훈의 유족들은 장자 김기수씨의 주도아래 선친의 연구를 위해 매년 천만원이상의 연구비를 본교 의사학교실에 기탁하고 있다. 그리고 청강진료부와 청강처방전을 포함한 김영훈의 유품연구는 현재 본교 의사학교실에서 김남일교수의 책임아래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며 청강진료부연구는 김영훈의 저서인 “『壽世玄書』연구” 이후 두 번째 연구주제이다.].

그림 1. 청강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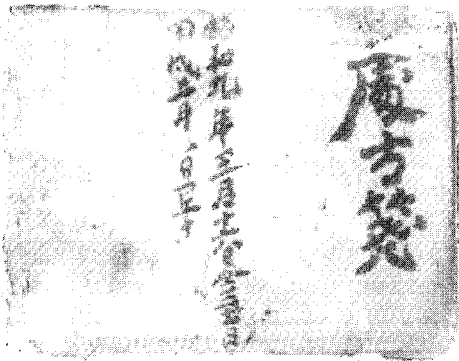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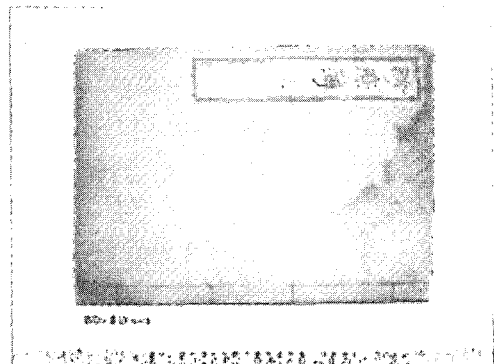


그림 2. 청강진료부



3. 晴崗診療簿 소개

현재 본교 의사학교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강진료부는 1915년 8월 16일부터 1974년 1월 15일까지 [1974년은 김영훈이 작고하는 해이며 1월 12일과 1월 15일의 진료기록 낙장만 존재한다.] 총 393 묶음이며 매 묶음이 보름 내지는 한달을 단위로 엮은 것이다. 필자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이 묶음단위를 ‘권’으로 표기한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청강진료부중에서 가장 최초의 것이 1975년 8월 15일부터이지만, 이 묶음의 표지가 “診療簿 十七” [청강진료부는 현재 보존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표지가 유실된 경우가 많고 해방전과 해방이후의 표기또한 다르기 때문에 필자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청강진료부의 진료일자를 중심으로 “診療簿 十七”이라고 되어 있는 청강진료부의 첫 묶음을 “1915(大正四)0816-0910”라고 임의의 제호를 달았다. 다른 청강진료부도 이와같이 진료일자를 중심으로 모두 “19××(大正×)×××-××××”라고 재표기하였으며 해방이후의 자료는 당시의 연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해방이전 청강진료부의 제호에 당시의 년호를 넣은 것은 원자료의 표기가 서기가 아닌 연호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하 본고에서 출전을 밝힐때는 필자가 새로 붙인 제호를 쓰기로 한다.]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역추산해보면 청강처방전이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한 1914년 4월 1일과 대략 일치한다. 그러나 보춘의원 개원시기(1909년 봄)와 진료부의 기록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청강진료부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1915(大正4)/0816-0910, 0910-0929, 0929-1101, 1102-1209, 1209-0115.
- 1916(大正5)/0114-0203, 0203-0227, 0301-0325, 0325-0425, 0426-0530, ★[이상에서 ★ 표기는 진료기록에 보름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오랜기

간 진료부를 보관하는 중에 유실된 것도 있으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료부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수씨는 한국전쟁과 한국전쟁이후 보관과정에서 유실된 것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1023-1206, 1207-0112.

- 1917(大正6)/0112-0215, 0215-0316, 0316-0425, 0424-0524, 0525-0625, 0625-0717, 0721-0824, 0824-0927, 0927-1122.
- 1918(大正7)/★ 0531-0623, 0624-0717, 0717-0817, 0818-0912 ★.
- 1919(大正8)/★ 0429-0523, 0523-0626, 0626-0720, 0720-0816, 0816-0831, 0901-0921, 0921-1106, ★ 1205-1219, 1219-0103.
- 1920(大正9)/0103-0125, 0125-0222, 0223-0423, 0423-0613, 0613-0717, 0716-0827, 0827-0930, 0930-1110, 1111-1123 ★.
- 1921(大正10)/★ 0508-0531, 0531-0621, 0621-0715, 0715-0801, 0801-0826, 0910-0929, 0929-1025, 1025-1122, 1121-1215, 1215-1231.
- 1922(大正11)/0101-0201, 0202-0226, 0226-0328, 0328-0421, ★ 1010-1104, 1104-1207, 1207-1231 1923(大正12)/0101-0206, 0206-0307, 0307-0325, 0326-0417, 0417-0515, 0515-0606, 0606-0705, 0705-0731, 0731-0823, 0823-0919, 0920-1017, 1017-1129, 1130-1231.
- 1924(大正13)/0101-0127, 0127-0228, 0228-0402, 0402-0510, 0511-0617, 0618-0727, 0727-0901, 0901-1003, 1004-1116, 1116-1231.
- 1925(大正14)/0101-0202, 0202-0217, 0217-0313, 0314-0406, 0406-0523, 0523-0628, 0621-0630, 0628-0731, 0801-0831, 0831-0925, 0925-1025, 1026-1129, 1129-1231.

- 1926(大正15) / ★ 0201-0304, 0304-0323, 0323-0419, 0419-0513, 0513-0607, 0607-0628, 0628-0723, 0723-0820, 0820-0904, 0904-0926, 0926-1025, 1025-1128, 1128-1231.
- 1927(昭和 2) / 0101-0127, 0127-0222, 0222-0318, 0318-0411, 0411-0511, 0511-0611, 0612-0725, 0726-0826, 0826-0924, 0924-1027, 1027-1206, 1206-0107.
- 1928(昭和 3) / ★ 0504-0526, 0527-0625, 0626-0722, 0722-0819, 1124-1219.
- 1929(昭和 4) / ★ 0315-0404, 0404-0427, 0427-0519, 0519-0612, 0612-0710, 0710-0803, 0803-0823, 0823-0911, 0911-0930, 0930-1020, 1020-1117, 1117-1211, 1211-1231.
- 1930(昭和 5) / 0101-0124, 0124-0219, 0219-0311, 0311-0401, 0401-0427, 0427-0519, 0519-0611, 0611-0703, 0703-0728, 0728-0819, 0728-0819, 0728-0819, 0819-0906, 0906-0923, 0923-1017, 1017-1113, 1113-1206, 1206-1220, 1220-1231
- 1931(昭和 6) / 0101-0119, 0119-0212, 0212-0228, 0301-0315, 0315-0403, 0403-0428, 0428-0522, 0522-0614, 0614-0705, 0706-0724, 0724-0813, 0813-0904, 0904-0924, 0924-1021, 1021-1120, 1120-1218, 1218-0109.
- 1932(昭和 7) / ★ 0221-0310, 0310-0402, 0402-0427, 0427-0521, ★ 0816-0902, 0902-0920, 0920-1021, 1021-1122, 1122-1220, 1220-0111.
- 1933(昭和 8) / 0111-0210, 0210-0305, 0305-0328, 0328-0425, 0424-0513, 0515-0607, 0608-0706, 0706-0730, 0801-0821, 0821-0909, 0909-0928, 0928-1021, 1123-1217, 1217-0112.
- 1934(昭和 9) / 0112-0203, 0203-0228, 0301-0402, 0402-0421, 0421-0511, 0511-0531, 0531-0621, 0621-0710, 0710-0727, 0727-0815, 0815-0831, 0831-0915, 0915-1002, 1002-1018, 1018-1111, 1111-1202, 1202-1222, 1221-0106.
- 1935(昭和 10) / 0106-0202, ★ 0523-0615, 0615-0702, 0702-0719, 0719-0811, 0811-0825, 0825-0911, 0911-0930, 0930-1024, 1024-1115, 1115-1201, 1201-1218, 1218-1231, 1231-0121.
- 1936(昭和 11) / 0121-0218, 0419-0505, 0505-0522, 0522-0608, 0608-0628, 0727-0813, 0813-0824, 0824-0919, 0920-1009, 1009-1028, 1028-1120, 1229-0113.
- 1937(昭和 12) / 0113-0127, 0128-0222, 0222-0308, 0308-0323, 0324-0408, 0408-0425, 0509-0526, 0526-0609, 0609-0624, 0624-0710, 0711-0725, 0808-0825, 0825-0909, 0923-1008, 1008-1025, ★ 1117-1203, 1203-1222, 1222-0114.
- 1938(昭和 13) / 0116-0203, 0204-0213, ★ 0726-0812, 0812-0824, 0824-0908, 0908-0927, 0927-1020, 1020-1102, ☆.
- 1939(昭和 14) / ★ 0621-0630, 0701-0714, ☆ 1015-1105, 1105-1125, 1127-1215, 1215-1231.
- 1940(昭和 15) / ★ 0217-0306, 0306-0320, ☆ 0505-0519, 0519-0602, ★ 1003-1023, ☆ 1223-0108.
- 1941(昭和 16) / 0108-0123, 0123-0213, 0213-0227, 0227-0318, 0318-0408, 0409-0501, 0501-0523, 0523-0608, 0609-0624, 0625-0709, 0709-0715, ☆.
- 1942(昭和 17) / 0101-0111, 0112-0115, ☆ 0701-0717, 0717-0807, 0807-0824, 0824-0909, 0909-0926, 0926-1001, ☆.
- 1943(昭和 18) / 0101-0125, 0125-0129, ☆.

1944(昭和 19)/0102-0115, 0116-0131, 0201-0215,
0216-0229, 0301-0315, 0316-0331,
0401-0415, 0416-0428, 0503-0513,
0519-0531, 0601-0614, 0616-0630,
0701-0715, 0716-0731, 0801-0813,
0821-0829, 0904-0914, 0918-0930,
1002-1015, 1016-1031, 1102-1130,
1201-1231.

1945 / ★.

1946 / ★.

1947 / ★.

1948 / ★.

1949 / ★.

1950 / ★.

1951 / ★.

1952 / ★.

1953 / ★ 1122-0222.

1954 / 0222-0511, 0511-1021, 1023-0405.

1955 / 0405-0731, ★ 1003-1230.

1956 / 0101-0225, 0226-0415, 0416-0610, 0610-0719,
0720-0906, 0911-1108.

1957 / ★ 0309-0614, 0616-0805, 0805-0927, 0927-
1129, 1130-0126.

1958 / 0126-0312, 0312-0426, 0426-0614, 0614-0731,
0801-0911, 0911-1027, 1028-1224, 1224-0215.

1959 / 0216-0328, 0328-0505, 0507-0630, 0701-0819,
0820-1005, 1006-1128, 1129-0119.

1960 / 0107-0325, 0321-0430, 0501-0625, 0627-0811,
0811-0924, 0924-1104, 1104-0219.

1961 / ★ 0328-0521, 0523-0718, 0719-0911, 0911-
1030, 1031-0103.

1962 / 0104-0105, 0106-0228, 0301-0601, 0601-0608,
0609-0831, 0901-0409.

1963 / 0410-0812, 0815-0229, 0301-0822, 0825-0131.

1964 / ★.

1965 / ★ 0208-0611, 0611-1128, 1201-0416.

1966 / 0417-1007, 1012-0312.

1967 / 0314-0806, 0807-1125.

1968 / ★ 0218-0418, 0306-0616, 0617-1115, 1202-
0725.

1969 / 1202-0725[1968년 마지막 것과 중복처리함]
★.

1970 / ★.

1971 / 1971년 1972년은 진료기록은 한권으로 묶여
있음.

1972 / 上同.

1973 / 1117.

1974 / 0112.

1974 / 0115.

4. 晴崗診療簿의 의학사적 가치

청강진료부는 청강 김영훈의 60년간에 걸친 임상 기록이다. 환자 개개인에 대한 병명과 증상 및 처방명과 구성약물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청강진료부의 사료적 가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생활사적인 가치이다. 청강진료부는 내원환자의 주소와 연령 직업과 질병명 등이 기록되어 있는, 낙원동을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한 한 명의 평생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당대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사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두 번째로는 의학사적 가치이다. 김영훈은 한의학계의 의권투쟁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지만, 진료에서도 탁월한 명의로 알려져있다. 그의 수제자였던 이종형은 1984년에 김영훈 작고10년을 기념해서 이 청강진료부중에서 김영훈이 즐겨썼고 또 효과도 좋은 처방을 추려서 『청강의감』이라는 유고를 편찬하였다. 이 『청강의감』은 현재 한의학계의 많은 한의사들에게 잘 알려진 처방집이며, 근대한의사들의 처방집중에서는 드물게 5판까지 인쇄되어 나왔다.[현재 2001년 5판까지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김영훈의 꼼꼼한 이 진료기록은 의학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에 답을 위해서 먼저 『청강의감』의 독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할 것이다. 조선후기 한국의학계는 『동의보

감』의 간행[1610년 초판간행]이후 『동의보감』이 주축이 되어 기타 중국의서들이 조선의사의 관점에서 수용되어 발전하였다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⁴⁶⁾ 조선후기에는 『동의보감』과 함께 『의학입문』도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는데 『의학입문』은 허준이 『동의보감』집필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가장 최신의 의서였으며, 이후 한국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1831년(순조32년)에는 의사고시 과목으로 채택되었고[『순조실록』 1831년 8월 30일 기사], 이종형은 『청강의감』(pp475-476)에서 김영훈은 스승인 서도순에게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의학입문』의 내용을 전수받았으며 김영훈 선생도 생전에 『의학입문』만한 책이 없다고 하시면서 암송하였다고 하였다⁴⁷⁾. 그리고 조선후기에 간행된 『방약합편』은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의 실용성을 높은 의서로 평가된다⁴⁸⁾. 즉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에 나와있는 방대한 처방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처방들을 가려뽑아 정리한 의서인 셈이다. 그래서 김영훈의 초기저작인 『수세현서』에 『방약합편』의 내용이 다수 실려있다⁴⁹⁾. 그러나 그후 수십년이 지나 간행된 『청강의감』에서는 가미보정산(加味普正散)⁵⁰⁾, 지당화중음(枳朮和中飲)⁵¹⁾ 가미분리음(加味分利飲)⁵²⁾, 제습순기탕(除濕順氣湯)⁵³⁾, 등 『의학입문』이나 『동의보감』 심지어 『방약합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름을 가진 처방들이 기본처방으로 등장한다. 물론 이 처방들은 구성 약물을 쓰는 법이 기존의 의서들과 비슷하고 또 기존 의서의 처방들의 변방들이 대부분이지만, 명칭이 바뀌고 적응증이 바뀌어가는 과정은 일종의 발전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방구성약물의 변화와 명칭의 변경이 한국의학의 발전과정의 하나라는 시각은 김남일 교수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일 교수는 중국의학의 수입과 토착화과정을 정리한 논문에서 “중국의학이 한국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 중국의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맞게 끝없이 이를 변용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갔다”라고 기술하였으며, 실례로 조선후기 한국의학계에 등장한 동의

보감, 사상의학, 사암침법, 부양론 등에 나타난 중국의학의 영향과 한국의학의 독창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⁵⁴⁾.

즉 19세기까지 당대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중국의 변방에 자리한 한민족이 추구해야 하는 발전방향은 결국 선진문화를 자기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많은 역사가들의 기본 명제와 김남일 교수의 한국의학의 토착화에 대한 논의 등에 근거해볼 때, 『청강의감』에 나타난 처방의 변화는 중국의학의 자기화과정이 보다 깊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달리 표현하면, 구한말 한단계 토착화된 중국의학을 습득한 김영훈은 60년간의 임상과정을 통해 한국현지인들에게 더욱 부합한 처방을 만들어 간 것이며, 『청강의감』은 그 과정에 대한 보고인 셈이다.

『청강의감』이 하나의 결과물이며, 보고서라면 본고에 소장되어 있는 청강진료부와 청강처방전은 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청강진료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김영훈이 비록 당대를 대표할만한 명의였고 의학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도 한 명의 개인인 이상 그의 업적이 당대의 모든 의학적 조류를 대표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직 일제강점기이후 한국의학사에 대해 사료의 발굴이나 정리가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진료부와 처방전에 대한 연구는 보다 많은 識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어서 많은 관련사료의 발굴이나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 고찰한 청강 김영훈의 진료부는 1999년 유가족이 선친의 유물을 기증한 것 중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본기관에서는 사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며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본고는 그 중의 일부인 청강 김영훈의 진료부를 낱째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이 진료부는 그 동안 불모지로 알려져왔던 일제시대 한국한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1.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90:10,75,137,205,216,475-6,490-1.
2. 韓大熙 編. 大韓韓醫師協會四十年史. 서울: 大韓韓醫師協會. 1989:32-154.
3. 鄭源燾 箸. 素軒鄭源燾遺稿集 解放後 漢醫學 발자취. 서울: 玄凡社. 1988:24-52.
4. 朴贊國. 동의학의 성립에 대한 연구.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137-150.
5. 김형태, 윤창열. 方藥合編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 171.
6. 김남일. 우리나라 전통의학기술의 중국의학 수입후 토착화에 대한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003;16(1):17-38.
7. 차웅석. 壽世玄書 연구 I. 韓國醫史學會誌. 2000;14(1)167-175.